

IB 프로그램 도입 본격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 협력각서 체결키로

올해 초중고 10곳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 상반기 관심학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IB교육 도입을 본격화했다. 그 일환으로 전북교육청은 오는 3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와 협력각서(MOC)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2월 중에 도교육청은 IBO와 MOC를 체결한 대구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충남, 인천, 서울 등 올해 IBO와 MOC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3월 IBO와 MOC 체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관심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공모를 통해 IB 관심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단계별 IB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B 프로그램의 도입·확산을 위해 △IB 프로그램 및 DP(Diploma Programme, 고등학교 과정) 외부평가 한국어화 추진 △IB 전문가 양성 △IB 프로그램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상별 특강 △IB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자료 개발·제작·보급 등에 나선다.

또한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IB 인증단계별 신청 및 인증을 위한 학교 컨설팅 지원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IB 연구회 운영 △IB 프로그램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사 연수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IB 연구소와 연계한 IB 프로그램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 및 업무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안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암기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및 정답 찾기식 평가의 한계를 탈피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에 충실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교실과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바칼로레아(IB)는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와는 다른 개념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IB 프로그램은 탐구·실험·성찰의 학생 중심 수업,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통해 자기 주도적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로 알려져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직원,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결의대회

청렴실천 의지 높이고... 부패는 멀리하고...

법과 원칙 준수·부정 청탁 금지·부당 지시 금지·특혜 제공 금지·갑질 금지 등 내용 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직원,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는 전북교육청 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청렴실천 자정 결의문 낭독, 청렴 서약식,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 청렴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자정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당 요구나 지시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들과 직원들이 청렴서약서를 작성, 청렴 서약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개인별 책상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어 정승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패 카르텔 역사와 포먼스, 청렴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도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제도 정비 △조직 구성원의 시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내부 부패통제를 통한 조직 자정작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맑고 깨끗한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 부단히 노력해 달라"면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전북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자존·도전정신·전대인 프라이드 가져달라”

전북대, 2024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 성황리 진행

학·석·박사 등 신입생 5235명 입학 허가... 유튜브 생중계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4일 오후 1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전행사로 취타대가 캠퍼스 곳곳을 돌며 신입생들을 환영했고,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들의 학사행렬이 이어져 입학식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 양 총장이 입학 대상자 5,235명(학사과정 4,121명, 석사과정 853명, 박사과정 261명)에 대한 입학허가를 선언했다.

2부 행사로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 전반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동아리 공연으로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이나 장학금 제도, 취업 지원, 학군단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와 학생 자치회 등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됐다.

또한 각 단과대학, 학과 별로 퓌퍼 스튜어와 함께 퀴즈타임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한편 전북대 학생지원과는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전북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 상황을 생중계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학의 교육 목표와 주요 정책 안내를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조기에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과 도전정신, 그리고 전대인으로의 프라이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0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다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고, 또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세계적인 플레그십대학으로 비상할 것"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에 대학이 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14일 오후 1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층 강당에서 2024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유·초·중등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교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교육에 힘·지혜 모아달라”

전북자치도교육청, 3월 1일자 교원 등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2층 강당에서 2024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유·초·중등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장 수여 대상은 본청 교육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부서 및 기관장 8명을 비롯해 유·초·중등교(원)장 59명, 교(원)감 57명, 수석교

사 13명, 교육전문직원 38명 등 총 175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새로운 임지로 가는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모두 축하드린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줄 분들로, 실력과 바른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워크숍

특수교사 등 280여명 참석

일상생활 활동 신설 등 담겨

16일 특수학교 교감 등 대상

일상생활 활동 설계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유·초·중등 특수교사 및 교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유·초·중등 특수교사 및 교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기본교육과정의 적용 대상 명시 △일상생활 활동 신설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 확대 등이 담겼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상생활 활동' 연구개발 책임자인 부산대 최진혁 교수가 중점사항 및 지도방안에 대해, 또 교육부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를 집필한 공주대 서효정 교수가 해설서 전반과 틀어보기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일상생활 활동은 기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과 수업의 어려움과 생활기능 교수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생활영역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지도서 및 교육부 총론 해설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신학기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특수학교 교감 및 초등과정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 활동 설계 워크숍을 갖는다.

대구 세명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의 일상생활활동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학교 간 공유를 통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일 특수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부장 등 30여 명이 충남 천안의 나사렛 새꿈학교를 방문해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정장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2월중 3차에 걸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잠재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한의대학 조현규 학생

SCI(E)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의학과 4학년 조현규 학생이 SCI(E)급 국제학술지 Current Issues in Molecular Biology(IF:3.1)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한약재 대북피의 신경염증 억제효과 연구"에 관한 이번 연구는 신경염증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각종 퇴행성 뇌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약재인 대북피와 그 주요 성분이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효과와 기전을 세포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특히 대북피의 신경염증 억제효과를 밝힌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한의치료를 통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사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대북피의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대한 활용까지 기대되고 있다.

조현규 학생은 "한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 교수님과 동료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약으로 계속 연구에 참여해 한의학의 근거 확립과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장학재단,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2년 연속 '우수' 선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년간 스테이터기반행정 조직 신설 스테이터기반행정 관련 내부 제정과 의결기구 신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행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획득(97점)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평균 65점 대비 32점을 상회하는 월등히 우수한 성적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